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8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3.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586명 추가 확진으로 총 3,736명, 서울시 98명 중 13명이 완치되원
- 이란 내 코로나19 발생자 급격한 증가로 가정방문검진이란 대책 초강수
-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4개소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50개로 확대
-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제안
-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등 밝힘
- 경남 공공병상 부족에 김경수 지사 "옛 진주의료원 폐쇄 아쉬워"

1. 발생 현황

코로나19 상황판

질병관리본부 '20.03.02. 00시 기준

	확진자	사망자	완치	의사환자**	검사중	결과음성	자가격리자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98	0	13	14,189	4,104	10,085	3,278	1,663	1,615
전국	4,212	22	31	105,379	33,799	71,580	-	-	-
전세계	83,157	2,853	36,476	-	-	-	-	-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02. 18시 기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서울시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기반 작성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연경 연구원 / ☎ 02-2276-8792 (unirtv@seoulmc.or.kr)

- 서울시 전일 대비 6명 추가 환자 발생, 총 98명 보고됨
 - 입원환자 85명, 격리해제 13명 / 질본확진환자 98명
 - 서울시 신규확진자 감염경로로 확진자의 접촉자(5건)가 가장 많음 (1건 확인 중)
- 국내 사망자는 22명으로 치명률은 0.28%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기준 서울시 사망자 없음
 - 기확진자와의 접촉력이 감염원인인 확진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금일 확진자 6명 중 4명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등록되어, 자치구의 관리를 받던 중 확진 판정받음.

성동구 A아파트 집단 감염 발생 현황 2차보고(2020.3.2.)

어제(3.1.)까지 성동구 A아파트 관련 총 7명이 확진 보고됨.

금일(3.2.) 추가로 3명 확진 보고됨에 따라, 성동구 A아파트 관련 총 11명이 확진 보고됨.

금일 확진자는 각각 서91, 서92의 자녀로, 3.1.부터 자치구에서 접촉자로 관리하며, 검사 시행함.

→ 관련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집중 관리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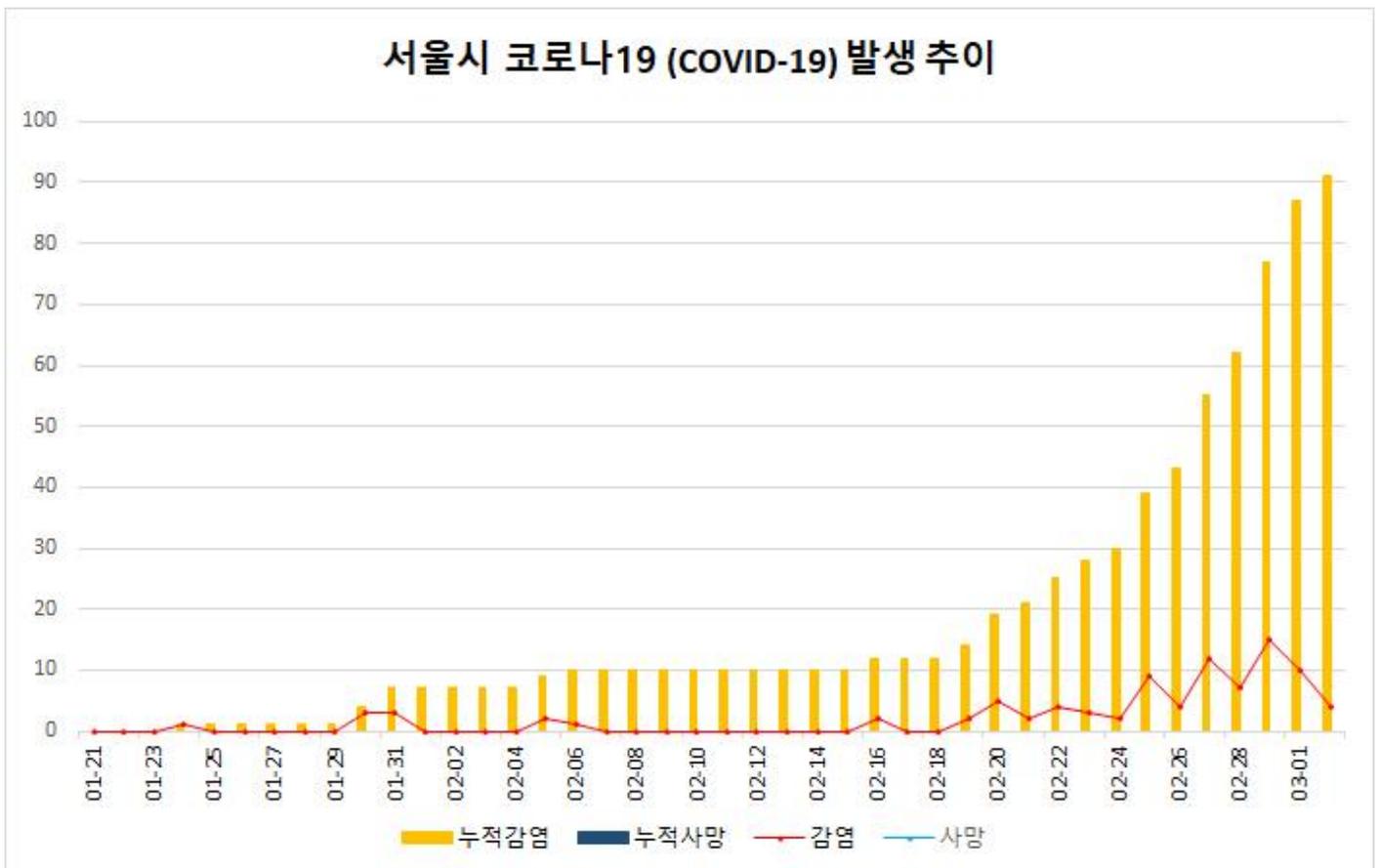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2. 18시 기준)

	구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자가격리현황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계	격리 중	격리 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계	감시중	감시 해제	진료	검체검사	X-ray
서울시	3.1.(일) 16시 기준	92	79	13	13,194	3,932	9,262	3,143	1,691	1,452	2,341	1,658	49
	3.2.(월) 16시 기준	98	85	13	14,189	4,104	10,085	3,278	1,663	1,615	1,857	1,222	추후포함 예정
	증감	6▲	6▲	-	995▲	172▲	823▲	135▲	-28▼	163▲	-484 (26%▼)	-436 (35.7%▼)	추후포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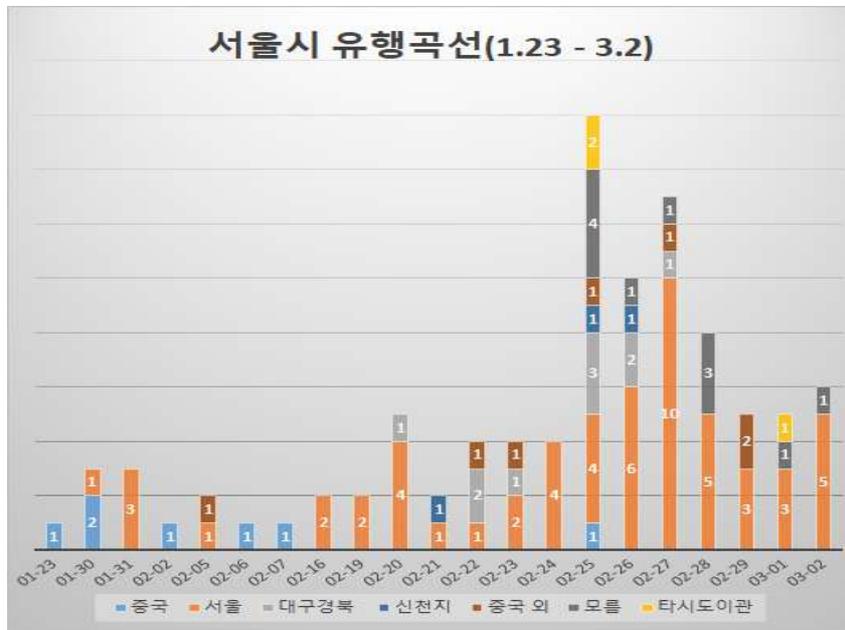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출처: 의료방역반 일일상황보고
(2.29. 10:00 기준)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2020.3.2.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추이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 곡선 (*확진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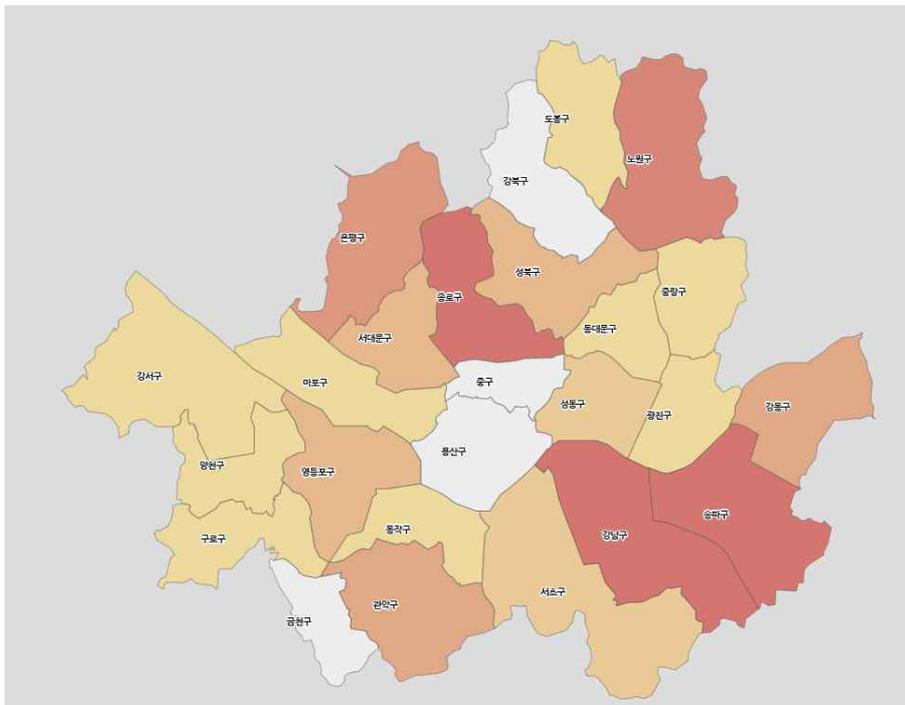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98명(종로11, 성동3, 동대문1, 중랑1, 성북5, 노원8, 은평7, 서대문4, 마포1, 양천2, 강서2, 구로1, 동작1, 관악4, 서초5, 송파12, 강동4, 강남9, 광진2, 영등포4, 도봉1, 기타9(타시도 이관))
- 총 22개구에서 확진환자 발생함. (*도봉구 추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로	송파	강남	노원	은평	성북	서초	관악	강동	서대문	영등포	성동	양천	강서	광진	동작	도봉	마포	구로	중랑	동대문	금천	중구	강북	용산	기타	계
확진환자	11	12	9	8	7	5	5	4	4	4	4	3	2	2	2	1	1	1	1	1	1	1	-	-	-	9	98
환자	-	-	1▲	-	-	2▲	1▲	-	-	-	1▲	-	-	-	-	-	1▲	-	-	-	-	-	-	-	-	-	6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 종로구: 집단발생(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최다 발생함 (총11명) ...
- 송파구: 개별 사례가 많아, 감염경로가 다양함 ...
- 강남구: 해외유입(1건), 직장 내 감염(2건) 신천지(1건), 대구분문(1건)등 개별사례가 많아, 감염경로가 다양함

● 서울시 확진자 건강상태(2020.3.2. 18:00 기준)

(단위 : 건)

환자구분			상대부분 (퇴원환자제외)					
계	환자	의료인	소계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	*확인증
98	96	2	85	69	12	3	1	0

*확인증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로부터 수합요청

● 서울시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2020.3.1. 18:00 기준)

(단위 : 건)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	임시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지정	지역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74	35	29 ¹⁾	6	39	5	6	7 ²⁾	21

1)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증가(4개소): 25 → 29개소, 성북·노원·은평·금천

2) 국·공립병원 선별진료소 감소(1개소): 8 → 7개소, 북부병원('20. 2. 29.), 호흡기질환 진료소로 대체

● 자치구 보건소 운영 현황(2020.2.29. 18:00 기준)

(단위 : 건)

날짜	진료		검체		X-ray	
	금일(2.29)	누 계	금일(2.29)	누 계	금일(2.29)	누 계
2020.2.29.	1,803	25,406	1,249	12,126	9	49

● 자치구 보건소 운영 세부운영 현황(2020.2.29. 18:00 기준)

(단위 : 건)

구 분	진 료		검체 검사		X-ray	
	2.29.	누 계	2.29.	누 계	2.29.	누 계
합 계	1,803	25,406	1,249	12,126	9	849
평 균	72	1,016	50	485	0	34
종로구	29	1,308	27	1,056	0	0
중구	18	803	10	178	0	19
용산구	35	808	30	756	0	1
성동구	70	724	16	154	5	269
광진구	97	1,029	71	300	0	94
동대문구	46	715	37	261	0	0
종랑구	27	332	25	309	0	0
성북구	82	498	37	197	0	3
강북구	150	1,207	19	116	0	12
도봉구	36	723	8	185	1	186
노원구	53	616	55	209	0	0
은평구	127	1,784	103	1,275	0	16
서대문구	65	1,148	41	350	0	11
마포구	48	823	45	559	0	0
양천구	53	751	6	253	0	1
강서구	32	894	32	662	0	51
구로구	82	1,444	82	816	0	13
금천구	53	1,232	35	694	0	3
영등포구	22	393	22	304	0	0
동작구	100	1,157	58	399	0	1
관악구	151	1,325	106	670	0	8
서초구	56	2,176	31	693	3	119
강남구	250	1,818	250	940	0	40
송파구	62	828	54	454	0	0
강동구	59	870	49	336	0	2

● 의료기관 운영 현황(2020.3.1. 18:00 기준)

(단위 : 건)

구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3. 1.)	누계	금일(3. 1.)	누계	
계	1,265	21,849	568	7,892	
국가지정	131	4,147	83	1,859	
지역거점	323	3,068	258	1,553	
국공립병원	49	1,428	38	1,097	
민간병원	762	13,206	189	3,383	

● 의료기관 운영 세부운영 현황(2020.3.1. 18:00 기준)

(단위 : 건)

구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3.1.)	누 계	금일(3.1.)	누 계			
합 계	1,265	21,849	568	7,892			
평 균	31.6	546.2	14.2	197.3			
1	국 가 지 정	국립중앙의료원	38	1,201	25	320	
2		서울대학교병원	0	1,420	0	236	
3		서울의료원	50	1,325	50	1,154	
4		중앙대학교병원	17	63	8	50	
5		한일병원	26	138	0	99	
6	지 역 거 점	순천향병원	0	404	0	187	
7		고대구로병원	28	417	27	267	
8		삼육서울병원	76	727	66	372	
9		강남성심병원	105	836	68	237	
10		상계백병원	89	613	72	426	
11		서울백병원	25	71	25	64	
12	국 공 립 병 원	어린이병원	0	1	0	0	
13		서북병원	34	880	34	845	
14		은평병원	0	2	0	0	
15		보라매병원	2	289	2	250	
16		동부병원	9	19	0	0	
17		북부병원	0	0	0	0	2.29.부터 미운영
18		서남병원	4	232	2	2	
19		적십자병원	0	5	0	0	
20	민 간 병 원	고대안암병원	49	281	0	192	
21		한양대학교병원	64	779	19	103	
22		강북삼성병원	0	2,565	0	160	
23		건국대학교병원	35	337	32	200	
24		경희대학교병원	45	296	5	72	
25		삼성서울병원	39	515	22	181	
26		연대강남세브란스병원	0	0	0	79	
27		연대서울세브란스병원	0	619	0	106	
28		서울아산병원	214	2,688	0	166	
29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0	280	0	108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3.1.)	누계	금일(3.1.)	누계	
30	이대목동병원	43	435	0	162
31	이대서울병원	0	312	0	223
32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0	102	0	997
33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74	403	67	287
34	강동경희대병원	51	677	25	173
35	을지대병원	0	301	0	4
36	강동성심병원	9	117	1	56
37	성애병원	42	923	2	20
38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48	497	7	48
39	중앙보훈병원	49	990	9	38
40	명지성모병원	0	89	0	8

국내 현황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염한솔 주임연구원/ ☎ 02-2276-8793 (yeomhs@seoulmc.or.kr)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4,212명(전일 16시 기준 대비 476명 추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는 22명(전일 16시 기준 대비 4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52%으로 확인됨.
- **확진자 중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대남병원 관련 집단발생(cluster)이 60.2% 차지하는 것을 보고됨.**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2.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1.(일) 16시 기준	98,921	3,736	30	3,688	18	95,185	33,360	61,825
3.2.(월) 0시 기준	109,591	4,212	31	4,159	22	105,379	33,799	71,580
증감	10,670 (9.7%)	476 (11.3%)	1* (3.2%)	417 (11.3%)	4** (18.2%)	10,194 (9.7%)	439 (1.3%)	9,755 (13.6%)

* 3.2. 오전중 격리해제 2명 추가 예정 (1987년생 남성, 2015년생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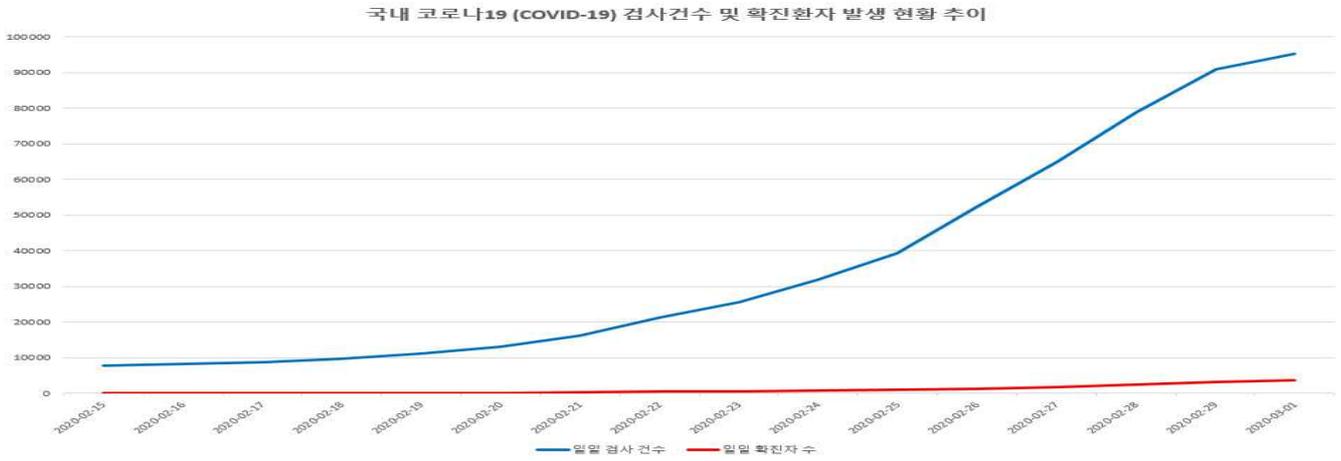
** 3.2. 오전중 사망 4명 추가 예정 (1939년생 남성, 1949년생 남성, 1955년생 남성, 1934년생 여성)

- 새롭게 확진된 환자 476명의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1. 16시	87	83	2,704	6	9	13	20	1	89	15	11	68	6	3	556	63	2	3,736
신규	4	5	377	1	0	1	0	0	3	4	0	10	0	2	68	1	0	476
합계	91	88	3,081	7	9	14	20	1	92	19	11	78	6	5	624	64	2	4,212

※ 신고지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현황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등이 다를 경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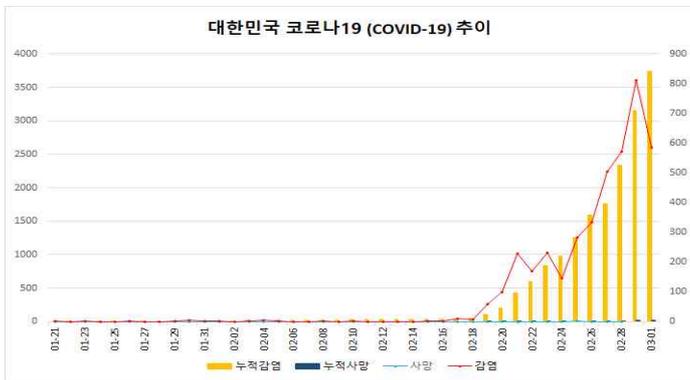
- 국내 코로나19 검사건수 및 확진환자 발생 현황 추이(2020.3.2.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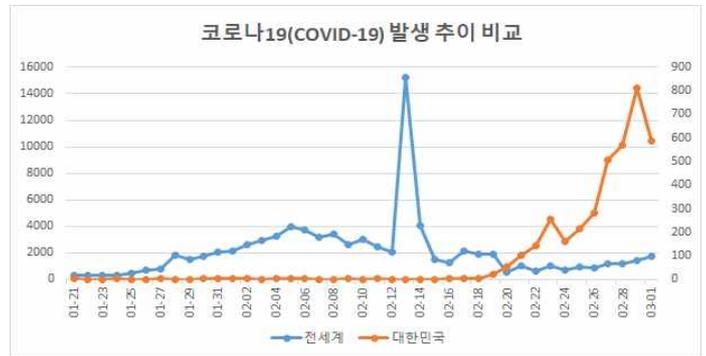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검사건수 및 확진환자 발생 현황 추이

- * 국내 코로나19 검사현황 105,379건, 확진환자 4,212명으로 확인되어, 검사 건수 대비 확진환자 발생률은 4.0%로 확인됨.
- * 2.18. 이후 대구/경북 신천지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는 압도적인 검사건수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국내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2020.3.2.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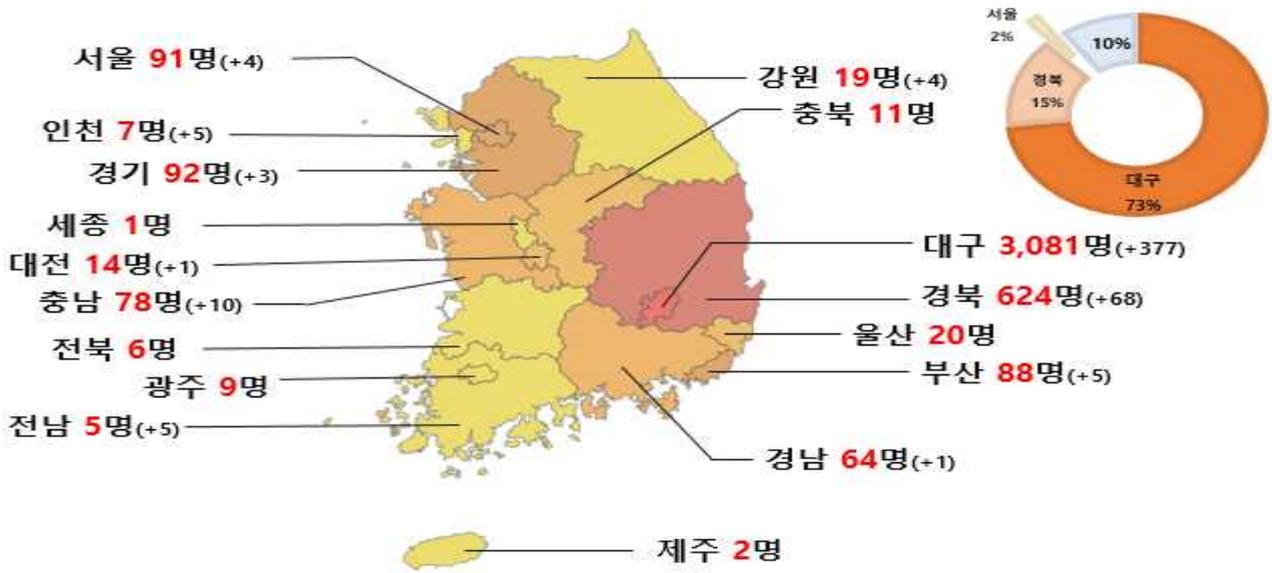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추이 비교

- 국내 확진환자 지역별 발생 현황(2020.3.2.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지역	확진환자(명, %)	주요 기타 유행
서울	91 2.2	은평성모병원, 기타 산발적 발생
대구	3,081 73.1	69.3%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기타' 상당수도 이와 관련하여 조사중
경북	624 14.7	신천지대구교회, 대남병원, 성지순례, 밀알사랑의집 등 관련
경기	92 2.2	신천지관련, 접촉자 중심 산발적 발생
부산	88 2.1	온천교회, 접촉자 중심 산발적 발생
경남	64 1.5	신천지대구교회, 거창교회, 온천교회 등
충남	78 1.9	61.5%가 천안시운동시설 등 관련
대전	14 0.3	
울산	20 0.5	
광주	9 0.2	
충북	11 0.3	
강원	19 0.5	
전북	6 0.1	
인천	7 0.2	
제주	2 0.0	
세종	1 0.0	
전남	5 0.1	
총계	4,212 100.0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코로나19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2020.3.1. 17:30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1.\)](#)

- 신천지교회 신규·교육생(약 23.9만 명)에 대해 각 지방단체의 증상유무 조사 진행 중 약 94.9% 증상유무 조사 완료(2.29. 24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수한 국내 신도 19,4781명(전체 국내 신도 212,324명 중 미성년자 16,680명, 주소지 불명 863명 제외)를 대상으로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그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전수 실시
- 대구외 지역: 유증상자 신도 8,563명(4.3%), 유증상자 교육생 383명(0.5%)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체채취 등 검사 진행
- 조사 미완료(소재 불명 등): 조사 완료되지 못한 국내 신도 4000여 명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찰 등과 협조해 확인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판> (2020.3.2.)**

- 방역대응체계 '피해최소화 전략' 전환 : 경증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입원 기회를 놓치는 중증환자들의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걸 방지하기 위함
- * 2.25.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이 부족하고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곧바로 입원하지 못한 75세 남성 A씨는 고령인데다 신장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 2.27. 75세 남성 A씨가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전례가 있음.
-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확진환자의 중증도 분류(4단계)를 통하여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시행
-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 실시 (생활치료센터 내, 전담의료진 배치하여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됨)
-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 취함.
-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 시설을 선정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부터 운영 실시함.

● 전 세계 발생 현황

- 2,09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89,077명(전일 대비 2.4%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2,981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3.42%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65개에서 69개(*체코,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로 증가됨.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2. 16: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1	중국	80,028	2,912	24	베트남	16	0	47	루마니아	3	0
2	한국	4,212	26	25	오스트리아	14	0	48	인도	3	0
3	이탈리아	1,694	34	26	스웨덴	14	0	49	브라질	2	0
4	이란	978	54	27	이스라엘	10	0	50	인도네시아	2	0
5	일본	256	6	28	레바논	10	0	51	벨기에	2	0
6	프랑스	130	2	29	네덜란드	10	0	52	이집트	2	0
7	독일	130	0	30	마카오	10	0	53	러시아	2	0
8	싱가포르	106	0	31	산마리노	8	1	54	아프가니스탄	1	0
9	홍콩	100	2	32	크로아티아	7	0	55	아르메니아	1	0
10	미국	87	2	33	그리스	7	0	56	벨라루스	1	0
11	스페인	84	0	34	에콰도르	6	0	57	도미니카공화국	1	0
12	쿠웨이트	47	0	35	핀란드	6	0	58	에스토니아	1	0
13	태국	43	1	36	오만	6	0	59	아일랜드	1	0
14	바레인	41	0	37	알제리	5	0	60	리투아니아	1	0
15	대만	40	1	38	멕시코	5	0	61	룩셈부르크	1	0
16	영국	36	0	39	덴마크	4	0	62	모나코	1	0
17	호주	29	1	40	파키스탄	4	0	63	뉴질랜드	1	0
18	말레이시아	29	0	41	필리핀	3	1	64	나이지리아	1	0
19	캐나다	24	0	42	아제르바이잔	3	0	65	북마케도니아	1	0
20	스위스	24	0	43	체코	3	0	66	캄보디아	1	0
21	아랍에미리트	21	0	44	조지아	3	0	67	네팔	1	0
22	이라크	19	0	45	아이슬란드	3	0	68	스리랑카	1	0
23	노르웨이	19	0	46	카타르	3	0	69	일본크루즈	706	6
합계										89,077	3,049
										치명률 (3.42%)	

전 세계 코로나19 (COVID-19) 추이



전 세계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1.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No.	국가 및 지역	사망자	치명률	발생율
1	이란	54	5.52	1.196
2	중국	2,912	3.64	5.746
3	이탈리아	34	2.01	2.803
4	일본	6	2.34	0.202
5	한국	22	0.62	8.157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2. 16:00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 추이 현황 (2020. 3. 1.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 '팬데믹'은 시간 문제

- *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두달 만에 전 세계 6대주 60여개 국으로 퍼져나가 글로벌 위험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올렸지만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음(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때 팬데믹을 선언).
- * WHO는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여전히 알려진 접촉이나 집단으로 추적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퍼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임.
- * 신종 감염병 확산 3단계(국내→국가 간→대륙 간 전파)로 봤을 때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북남미 대륙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여 팬데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고려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
- * 신종 플루 때와는 달리 치료제(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 없으므로 개인 및 환경 위생을 신경 쓰고 사람 간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이 필요(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 기모란 교수).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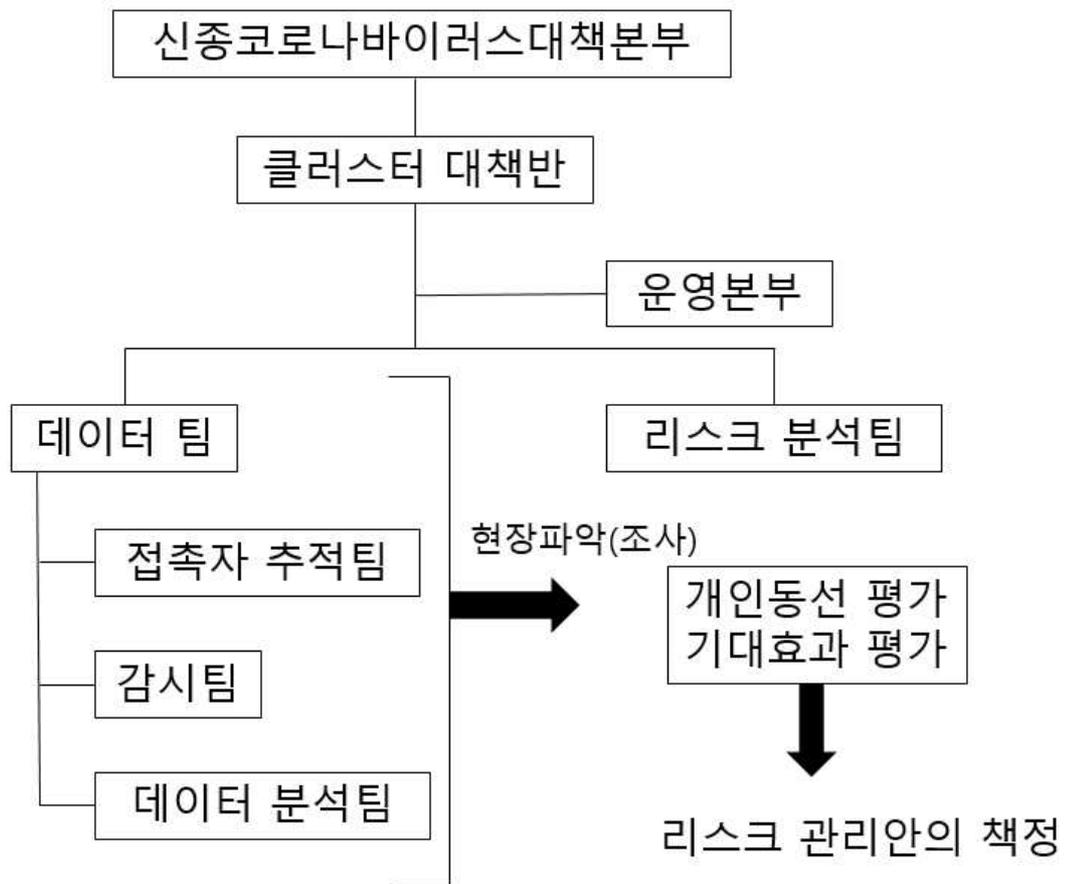
- **일본 후생성의 코로나19분석(확진자 110명의 접촉자 조사)**

- *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83명(75%)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았음.
- * 환기가 나쁜 밀폐된 환경에서는 1명이 최다 12명까지 집단 감염시킨 사례 확인됨.
- * ‘야카타부네’에서 감염자 1명(70대, 도쿄도, 택시기사)이 12명을 감염시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배 안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신년회 모임을 가짐.
- * 환기가 나쁘고, 사람이 뭉쳐 시간을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우려가 높은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 환기가 된다고 해도 공기 흐름이 정체된 실내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위험
- * 특히 가볍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근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피해야 함.

- **일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luster 대책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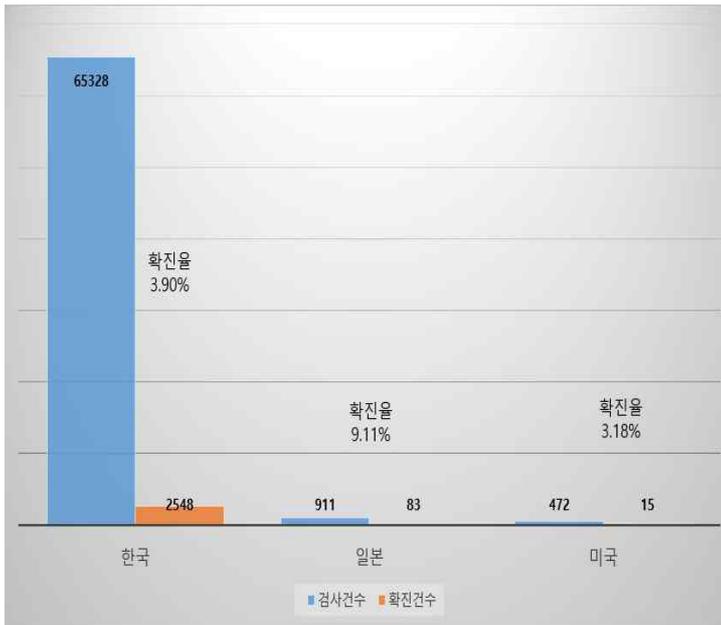
- * 향후 감염의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환자 클러스터가 다음 클러스터를 생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대책반을 설치함.
- * 클러스터가 발생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클러스터 발생의 조기 탐지 전문가 팀 파견, 데이터 수집분석 및 대응책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염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 코로나19 사망자를 돌봤던 도쿄의 간호사, 고치현의 간호사, 니가타의 60대 남성, 센다이의 70대 남성, 홋카이도에서만 4명 추가가 되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확실한데도 크루즈감염사례들을 제외한 일본 당국의 ‘공식 확진자’는 여전히 256명뿐임.

클러스터 대책반



클러스터 대책반 조직도(일본)

- **코로나19 검사 확진율 비교**



코로나19 검사 확진율 비교

*지난주 코로나19 검사 대비 확진율은 일본 9.11%, 미국 3.14%, 한국 3.90%임.

* 한국은 하루에 7,500번의 검사를 할 수 있음 (매일 약 5,000~6,000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일본은 일일 100개 보다 적음).

* 한국의 코로나19 진단역량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매우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단 역량을 보여준다고 함(미국 FDA 의학박사 스콧 고틀립 국장).

* 현재 미국의 검사 기준은 감기나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가능함.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12개의 보건당국 뿐임. 검사 비용 약 150~400만원임.

*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 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고 워싱턴주에서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음(요양시설에서 확진되었으며, 미국 첫 번째 사망자와 동일한 요양병원임).

* 한국과 이탈리아를 여행금지 대상으로 올리는 등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했으나 자국 내 확산은 놓치고 있음.

- **국내 벤처기업 ‘솔젠트’ 코로나19 진단시약 유럽인증(CE)획득**

*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시약을 생산하는 글로벌제약사 ‘로슈’가 국내 공급 예정 물량을 중국측으로 돌려 진단검사에 필요한 시약의 수급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음.

* 질병관리본부 긴급사용 승인된 제품인 DiaPlexQ™ Novel Coronavirus (2019-nCoV) Detection Kit는 2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ORF1a gene, N gene)를 RNA 추출 후 2시간 이내 동시에 정성 검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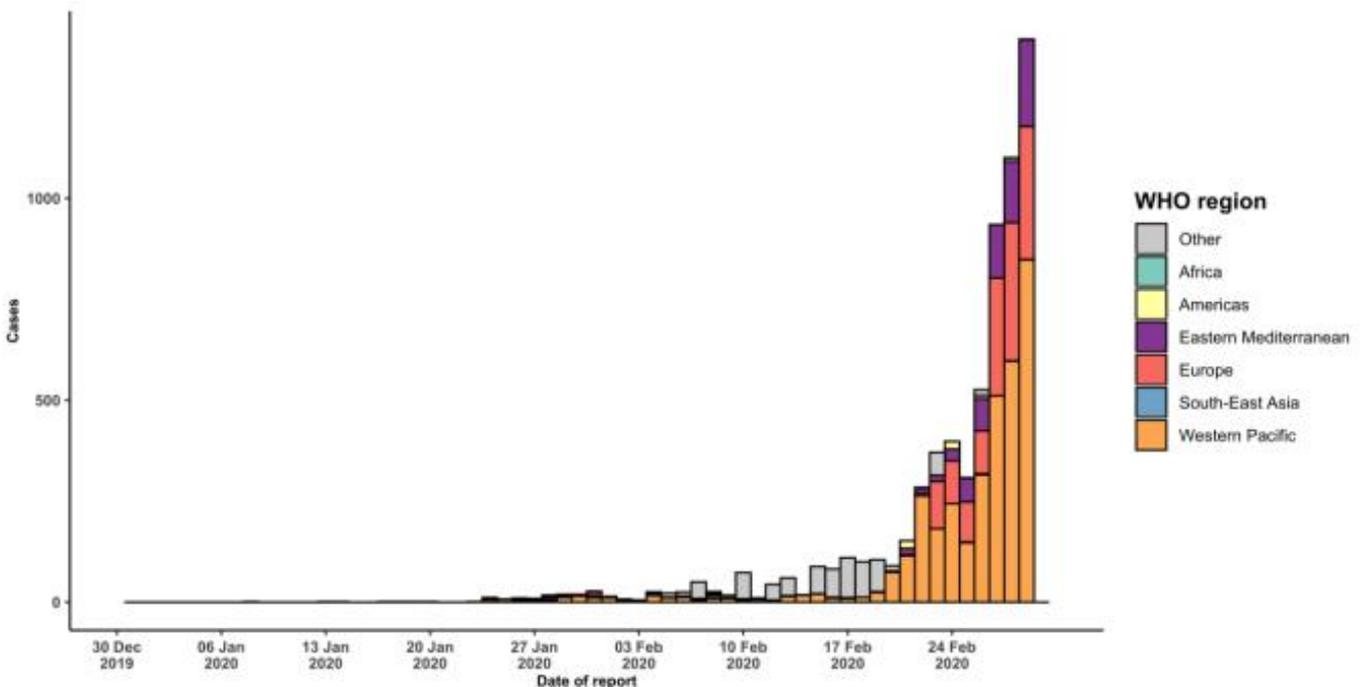
* 유럽 인증을 받은 또 다른 제품인 DiaPlexQ™ 2019-nCoV (RdRp, E, N) Detection Kit는 3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RdRp gene, E gene, N gene)를 검출유전자로 하며, RNA 추출 후 2시간 이내 동시에 정성 검출할 수 있음.

* 적용 양의 샘플로도 검출이 가능한 높은 민감도와 다른 바이러스 및 균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코로나 19만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음.

* 일일 생산가능물량은 1만5000 ~ 2만 테스트 규모로써 비상생산체제를 가동해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 확진환자 7,169명(전일 대비 1160명 추가, 19.3%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104명(전일 대비 18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1.45%로 확인됨.
- 이탈리아 - 신규 확진자 240명(전일 대비 27% 증가) 발생함(총 1128명).
 - * 이탈리아 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인접 국가인 프랑스 130명, 독일 130명임.
 - *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는 인접국가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와 왕래가 활발하며, 매일 수만명의 이탈리아인들이 국경을 건너 일하러 오는 등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음.
- 중동11개국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넘어
확진자 대부분이 최근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란은 '중동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목
 - *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전역에 확산한 이유
 - ①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음, 사업 등을 목적으로 이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많음. 이란의 첫 사망자 역시 정기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상인임.
 - ② 이란의 예배당을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성지순례를 찾아 자주 찾아와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옴.
 - * 가정방문 검진을 실시하기로 함.- 이란의 총 가구 수는 2016년 기준 2,420가구로 알려져 있음.
 이란 보건당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30만개의 의료팀(준군사조직인 바시즈 민병대도 포함)이 2일부터 전국의 가정으로 찾아가 의심환자를 가려내고 병원으로 보낼 것을 밝힘.
 - * 중국과 이란은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서로를 지원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음.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의료팀이 테헤란에 도착하였고 신종 코로나 진단 키트 5000여개와 마스크 25만 여개를 보냄. 이란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자 지금까지 마스크 300만개를 중국에 보냈음.



2020년 2월 28일까지 조사가 완료된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1.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신규)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서태평양				
한국	3736 (586)	18 (1)	지역 전파	0
일본	239 (9)	5 (-)	지역 전파	0
싱가포르	102 (4)	0 (-)	지역 전파	0
호주	25 (1)	0 (-)	지역 전파	0
말레이시아	24 (-)	0 (-)	지역 전파	2
베트남	16 (-)	0 (-)	지역 전파	17
필리핀	3 (-)	1 (-)	해외 유입	26
캄보디아	1 (-)	0 (-)	해외 유입	34
뉴질랜드	1 (-)	0 (-)	해외 유입	2
유럽				
이탈리아	1128 (240)	29 (8)	지역 전파	0
프랑스	100 (43)	2 (-)	지역 전파	0
독일	57 (-)	0 (-)	지역 전파	1
스페인	45 (13)	0 (-)	지역 전파	0
영국	23 (3)	0 (-)	지역 전파	0
스위스	18 (8)	0 (-)	해외 유입	0
노르웨이	15 (9)	0 (-)	지역 전파	0
스웨덴	13 (1)	0 (-)	해외 유입	0
오스트리아	10 (5)	0 (-)	해외 유입	0
크로아티아	7 (2)	0 (-)	지역 전파	0
이스라엘	7 (2)	0 (-)	해외 유입	0
네덜란드	7 (5)	0 (-)	지역 전파	0
아제르바이잔	3 (3)	0 (-)	해외 유입	0
덴마크	3 (1)	0 (-)	해외 유입	0
조지아	3 (1)	0 (-)	해외 유입	0
그리스	3 (-)	0 (-)	해외 유입	2
루마니아	3 (-)	0 (-)	해외 유입	1
핀란드	2 (-)	0 (-)	해외 유입	4
러시아	2 (-)	0 (-)	해외 유입	30
벨라루스	1 (-)	0 (-)	해외 유입	2
벨기에	1 (-)	0 (-)	해외 유입	26
에스토니아	1 (-)	0 (-)	해외 유입	3
아일랜드	1 (1)	0 (-)	해외 유입	0
리투아니아	1 (-)	0 (-)	해외 유입	2
모나코	1 (1)	0 (-)	조사중	0
북마케도니아	1 (-)	0 (-)	해외 유입	4
산마리노	1 (-)	0 (-)	지역 전파	1
동남아시아				
태국	42 (-)	0 (-)	지역 전파	1
인도	3 (-)	0 (-)	해외 유입	27
네팔	1 (-)	0 (-)	해외 유입	48
스리랑카	1 (-)	0 (-)	해외 유입	34
중동				
이란	593 (205)	43 (9)	지역 전파	0
쿠웨이트	45 (-)	0 (-)	해외 유입	1
바레인	40 (2)	0 (-)	해외 유입	0
아랍에미리트	19 (-)	0 (-)	지역 전파	1
이라크	13 (5)	0 (-)	해외 유입	0
오만	6 (-)	0 (-)	해외 유입	2
파키스탄	4 (2)	0 (-)	해외 유입	0
레바논	2 (-)	0 (-)	해외 유입	4
아프가니스탄	1 (-)	0 (-)	해외 유입	6
이집트	1 (-)	0 (-)	해외 유입	16
카타르	1 (1)	0 (-)	해외 유입	0

중국 외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1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신규)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아메리카				
미국	62 (-)	0 (-)	지역 전파	1
캐나다	19 (5)	0 (-)	지역 전파	0
브라질	2 (1)	0 (-)	해외 유입	0
멕시코	1 (1)	0 (-)	해외 유입	1
에콰도르	1 (1)	0 (-)	해외 유입	0
아프리카				
알제리	1 (-)	0 (-)	해외 유입	5
나이지리아	1 (-)	0 (-)	해외 유입	2
기타				
일본 크루즈	705 (-)	6 (-)	지역 전파	4
총 합	7,169 (1160)	104 (18)		

● 중국 발생 현황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026명(전일 대비 202명 추가, 0.25%증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2,912명 (전일 대비 42 명 추가)으로 치명률 3.64%로 확인됨.
- *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확진자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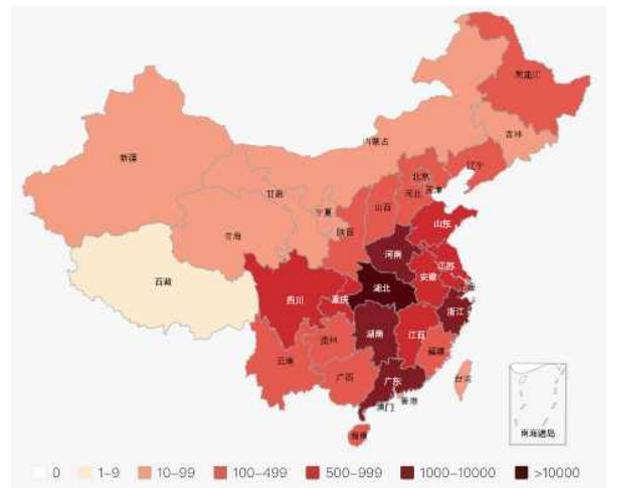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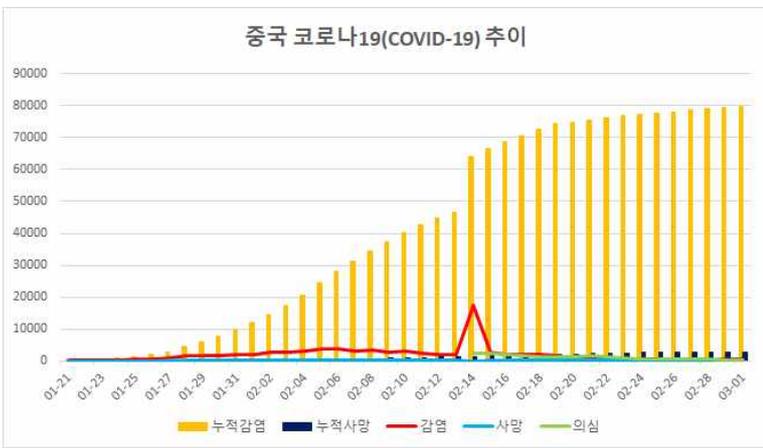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3.2.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1.(일) 16시 기준	79,824	2,870
3.2.(월) 9시 기준	80,026	2,912
증감	202	42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1.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지역	인구수 (10,000s)	일일현황			누적현황	
		확진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후베이성	5,917	570	64	34	66,907	2,761
광둥성	11,346	0	1	0	1,349	7
허난성	9,605	0	0	1	1,272	22
저장성	5,737	0	0	0	1,205	1
후난성	6,899	0	0	0	1,018	4
베이징	2,154	2	18	0	413	8
홍콩	745	1	0	0	95	2
대만	2359	5	0	0	39	1
마카오	66	0	0	0	10	0
기타	103,995	1	49	0	7,660	67
총 합	148,823	579	132	35	79,968	2,873

* 베이징의 전일 의심환자 9명 중 확진 1명으로 보고됨.



중국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1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분포 (출처) <http://ncov.dxy.cn/>

- 중국의 확진자 추세

* 강력한 통제정책(대중교통 운영 전면 중단, 다수시설 임시 휴무, 학교개학 연기 등)으로 2월 14일 이후 확진자 증가율이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2월 2째 주 9,077명 증가. 2월 3째 주 3,255명 증가 2월 4째 주 1,674명 증가함.

2. 정책 동향

서울시

서울소식 내 새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장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4개소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50개로 확대

- 서울시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의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본격 운영
 - *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란 차량에 탑승한 채 단계별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기시간 단축, 타인 접촉 방지 등을 위해 새롭게 도입함
 - *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는 총 4개소에 설치, 3일부터 ▲서울시 은평병원(은평) ▲소방학교(서초)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송파)에 개소하며, 이어 5일 ▲이대서울병원(강서)이 운영을 시작함. 평일·주말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임
 - * 차에 탄 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기자 간 감염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인당 검체채취 시간이 최대 1시간에서→10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의료진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됨
- 진료절차는 4단계로 ①안내→②문진→③진료→④검체채취로 진행됨. 진료과정에서 폐 엑스레이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인근 시립병원과 보건소로 연계함

1단계-안내	2단계-문진	3단계-진료	4단계-검체 채취
문진표 배부와 작성	문진표 확인	체온측정, 의사진료 (여행경력, 접촉 여부, 발열여부 확인 후 검체 채취 결정)	상·하기도 검체 채취 (비대상자 귀가 조치)

- 코로나19 확진환자 지속 증가에 따라 지역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30개소에서 5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임
- 현재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30개소(자치구별 1개~2개소)를 운영 중이며, 2일 광진·중랑·노원·은평·강동구 등 5개구에 음압텐트 확대 보급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50개소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임
 - * 최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이 늘면서 2월 넷째주(2.23.~2.29) 1주 동안, 전체 하루평균 진료가 87.8건, 검체채취는 50건이며, 하루 평균 진료건수 100건이 넘는 자치구가 7개구, 검체채취 50건이 넘는 자치구가 10개구에 달함
- 서울시는 병원내 감염확산을 대비하고자 현재 서울지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44개소를 73개소로 대폭 확대·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검체채취에 '임상병리사'를 투입해 대기시간을 줄이는 한편, 하루 진료 인원을 대폭 늘릴 예정임
 - * 의사가 진료 및 검체채취 두 가지를 병행하던 기존 검사방식에서 임상병리사의 검체채취 투입으로, 진료 대기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시는 1일 자치구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검체채취 방법, 관리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3개구에서 임상병리사가 투입되어 검체채취를 하던 것을 25개구로 확대할 예정임

●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 의료지원단 모집

1. 신청링크: <https://forms.gle/xyPz1KJRaAiKBtK69>
2. 모집기간: 2020년 2월 28일(금) ~ 상황 종료 시
3. 모집내용: 서울시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 의료지원
 - * 이동식 선별진료소 : 개방된 옥외 공간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지나가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4. 모집분야: 의사(한 의사, 치과 제외)
5. 활동방법: 3시간 이상 근무(3교대 근무)
6. 자격요건: 의료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한 의사, 치과 제외)
7. 활동시작: 3월 3일(화) 부터 시작 예정
8. 문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670-1365



● 은평성모병원 조치현황(2.27.현재) 및 향후 대책

- 은평성모병원 이송요원(#161) 2.21. 첫 확진 이후, 2.27. 현재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확진자 총 13명으로 전일대비 2명 추가됐음. 확인된 접촉자 704명 전원 격리 및 추가 조사 중
 - * 환자, 의료인 등 대상 감염여부에 대해 2,364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2명, 음성 2,318명이며, 44명이 진행 중
- 병상 방역 완료 후 환자 재배치를 실시하여, 접촉자는 모두 1인1실로 배치했고, 비접촉자 중 유증상자도 '1인1실'로 배치, 무증상자는 '2인1실'로 배치해 감염확산 차단과 환자치료에 집중하고 있음
 - * 또한 유증상자 추가 발생 대비 여유 병실을 확보해 두었음
-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추가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8명 유증상이 발생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나왔음

●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제안

- 이번 주, 코로나19 폭발적 확산의 기로, 3월 초 확산 제어 못하면 심각한 통제 불능 위기상황 직면 가능
- 통제 아닌, 자발적 격리를 통한 감염 차단 노력, "잠시 멈춤" 강렬 실천 요청, 멈춤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몇십배 클 것
 - *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도 획기적으로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처럼 활동해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을 통해 얻게 될 일상 회복 속도와 사회적 이익이 몇십배 더 클것이라 확산
 - * 미국 뉴욕타임즈, 2.25. 기사 통해 "한국의 조치는 1,100만 시민의 자택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동을 제한시킨 중국 우한과는 대조를 이룬다"며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면서 감염을 억제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둔다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중에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
-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투트랙 전략 유지해야 함, ①물샬 틈 없는 방역대책을 통한 지역감염 확산의 완전한 차단, ②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와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
- 이에 서울시에서는 2주간의 '잠시 멈춤'에 적극적 동참해 줄 것을 제안

잠시 멈춤 4대 전략

1. '잠시 멈춤'에 대한 사회 전 분야 참여 확대

- 공공민간 전면 협력하여 '잠시 멈춤' 집중 실천
 - 상당수 대기업들은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
 - 일부 서비스 제공기업 역시 교대형 재택근무를 운영 중
 - 기업들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실시 동참 부탁
 - 중소기업 등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지원 예정
- 서울시 70% 출퇴근 시차제 실시, 재택근무 범위 확대 중
 - 이미 70%의 직원이 출퇴근 시차제를 실시
 - 밀접접촉의 완화, 재택근무직원의 범위 확대
 - 필수적 도시기능 차질 없도록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등 비상 인력운영 사전준비에도 만전

3. 정부-지자체 공조체계 구축 통한 동시적, 전국적 시행

- 정부 및 지자체 공조체계 구축, 동시적 전국적 시행
 - 모두의 아픔, 국가적 재난에는 행정구역상 경계 없음
 -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여야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행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조속히 함께 모여 논의하기를 희망함
 - 특히, 인접한 광역 지자체로서 같은 수도권 생활권인 경기, 인천 등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제안

2. 공백과 사각지대 없는 '잠시 멈춤' 정책 추진

- 사각지대 발생 없도록 돌봄, 지원 강화
 - 멈추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
 -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취약계층 시민 돌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 어르신, 장애인 돌봄 공백, 긴급 복지지원체계 강화
 - 보육공백 최소화 위한 긴급돌봄 실시
 -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 지원, 도시락 제공 등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어려움 최소화, 모든 지원 수단 강구
 -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구축

4. 시민과 지역사회, '자발적 격리' 위한 지원

-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시민 실천 수칙
 - 하나,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 둘,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 셋, 나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 **서울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38,006명 94.6% 조사완료**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 28,317명과 신천지 교육생 9,689명에 대한 조사를 4일간 진행한 결과 총 35,965명에 대한 조사 완료, 유증상자를 891명 발견했다고 발표함
-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하여 검체채취 요청, 총 388명이 진단검사에 응해 **2명은 양성**, 305명은 음성, 결과대기 81명으로 확인 됨
 - * 향후 이들이 검사를 받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결과도 100% 확인할 예정임
- 조사를 거부하거나 계속된 연락에도 통화가 불가능해 경찰청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833건으로, 이중 557건은 조사를 완료하고 274건은 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임
- 특히, 발견된 확진자인 60대 여성은 당초 동작구청의 조사에도 “과천 예배는 참석하였으나, 증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이후, 검체 채취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바 있어 무증상 감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대구, 경북 방문 이력 있거나 과천예배 참석했던 신도들 자가격리 조치, 당초 조사 때 2.16. 과천예배 참석 사실을 숨긴 2,748명은 별도의 타깃 조사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파 우려 최소화 할 계획임
- 불성실한 답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 **서울시,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고발**

- 서울시는 3월1일(일) 20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힘
 - * 지난 2.18.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됨
 - * 또한,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 있음
 - * 피고발인들은 자진 검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뿐아니라, 오히려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음
- 박원순 시장,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조기 진정을 위한 비상수단이라 설명

-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등 밝힘
- 보건복지부 3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 특히,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힘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출처: 2020.3.2.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내 발췌

1.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강화

[검역강화]

-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검역제도 강화
- (인프라)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을 확충
 - * 전자검역심사대 확대(22대 → 38대),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
- (제도)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 입원·격리조치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단검사역량 강화]

-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 구축

[병상확충]

-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 강화
 - * 시·도, 시·군·구 재량 지정 → 국가 및 시·도 의무 부여(감염병예방법 개정)

[치료제 개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체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
 - *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환자 신속적용 검토

[기타]

-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신속대응위한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

-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 확충, 인사 등 운영 독립성 지속 강화.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 추진
- 핵심 인력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
 - * 인건비 인상·국제기구 근무 등 경력관리 지원 등 장기 근속 유인 제고

3. 주요 감염병 예방·상시 관리 강화

- (인프라)감염병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을 설치
- (협력)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 활성화, 한·중·일 합동 훈련('20.11)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서비스)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 강화
 -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초등→중1), 만성간질환자(7.8만 명) A형감염 예방접종 등
 - ** 감시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및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의료법 개정)

4. 코로나19 사후 평가 및 과제 지속 발굴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 확진 환자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

● 대구·경북 경증환자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진 현황

- 3.2.부터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대구시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여 '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함

- * '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 센터에는 대구시 경증 환자 160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경증환자 분류 및 배정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임

- 센터에는 경북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총 17명의 의료인력을 배치하, 이들은 센터에 상주하며 입소자들에게 지속적·주기적 의료 증상 관리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 입소 환자들은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등 매일 2회 자가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주하는 의료진의 확인 및 진단 과정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계속 생활치료센터에 거주하게 됨
- * 입소 환자들에게는 체온계, 필수약품 등이 포함된 개인위생 키트와 개인구호 키트(속옷, 세면도구, 마스크 등) 등 물품 지급, 매일 식사와 간식 등도 무료로 제공 예정
- * 입소 전·후 소독 실시, 복도·승강기 등 입소자 접촉이 많은 공간은 매일 소독 하여 감염 확산 방지, 발생한 폐기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임

대구1 생활치료센터 현장 사진



- 삼성, 경상북도, 영덕군 등의 협조를 받아 경북 영덕의 삼성 인력개발원도 경증 확진환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

- * 최대한 경증 확진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증환자의 갑작스런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진료·방역 종사 의료인의 보호장구 등 물자 관리방안

- 정부는 진료·방역 등에 종사 중인 의료인의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전신보호구(레벨D 세트; 보호복+고글+마스크+장갑+덧신), 방역용 마스크(N95)를 의료현장에 신속히 배분 중임

- * 현재까지(1.20.~2.29.) 전국 시도, 국가지정 병원 등에 전신보호구(레벨D 세트) 약 58만 개, 방역용마스크(N95) 약 139만 개를 배포함
- * 특히, 31번 확진자 발생일(2.18.)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 전신보호구(레벨D 세트) 14만 개, 방역용 마스크(N95) 14만 개, 이동형 음압기 103개, 자가격리 위생키트(체온계+수술용마스크+손소독제) 1만여 개 등을 우선 지원하였음

주요 물품 지원 현황(2.29. 기준, 단위:개)

	레벨D 세트	N95	PAPR후드	자가격리 세트	음압기
2.18이후 전국 배포량	368,170	593,940	210	10,310	160
대구·경북 배포량	135,800(37%)	139,100(23%)	122(58%)	10,300(100%)	103(64%)
대구	95,100	90,500	100	10,100	55
경북	40,700	48,600	22	200	48

- 방역 물품·장비의 전달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경북 감염병전담병원(12개소) 간 직통 물품 지원체계 가동중임(2.29.~)

- * 대구 전담병원(7개소) : 계명대동산병원(중구),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 * 경북 전담병원(5개소) :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상주·영주적십자병원

-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신보호구 등 방역 물품·장비를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임

- * 이를 위해 현재 전신보호구(레벨D 세트) 26만 개, 방역용마스크(N95) 81만 개를 비축하고 있으며(2.29.기준), 3월 말까지 전신보호구 약 150만 개, 방역용마스크(N95, KF94) 180만 개를 추가 구매할 예정임
- *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이동식 음압기는 3월 13일까지 총 1,200개를 순차적으로 구입, 필요 기관 지원 예정
- * '자가격리 위생키트'는 구성품 중 체온계가 중국 및 국내 수요 급증 등으로 품귀 현상 발생하였으나, 전자체온계, 색조식체온계 등으로 대체. 3우월 2일까지 5,000개, 3월 말까지 3만개 추가 확보 계획

● 코로나19 신규 환자 476명…확진자 4212명으로 늘어

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오후 4시에 비해 476명 더 증가했다. 누적 환자 수는 4212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대구로, 전날 오후 보다 377명이 증가했다. 이밖에 경북에서 68명이 늘었고 충남에서 10명, 부산에서 5명씩 증가했다. 서울(4명), 강원(4명), 경기(3명), 전남(2명), 인천(1명), 대전(1명), 경남(1명)에서도 추가로 환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두 차례 국내 코로나19 현황 집계를 공개하고 있다. 1일까지는 오전 10시에 오전 9시 기준 현황을 발표했으나, 이날부터는 오전 0시 기준의 집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30627.html>)

● "코로나19 환자 절반은 정상 체온..발열 여부만으로 판단 못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발열 여부만으로 선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중국, 홍콩 등에서 오는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앱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는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할 때 선별진료소를 찾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환자의 경우 입원하는 시점에서 체온을 측정하면 중증이지만 체온이 37.5℃가 안 되는 환자가 52%이고, 환자 1천여 명을 조사했을 때도 56%는 체온이 높게 측정되지 않았다"며 "매뉴얼,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 중증환자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폐렴을 진단할 때도 의료진의 면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흉부 X선 검사로 폐렴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치돼도 폐가 손상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01170208658>)

● 경남 공공병상 부족에 김경수 지사 "옛 진주의료원 폐쇄 아쉬워"

김 지사는 "전국에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경남이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원인이 옛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권의 공공의료가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29일 폐업 당시 325병상이었다. 2009년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1만2천명을 진료하고 498명의 신종플루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감염병 치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도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서부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경남 전반의 공공의료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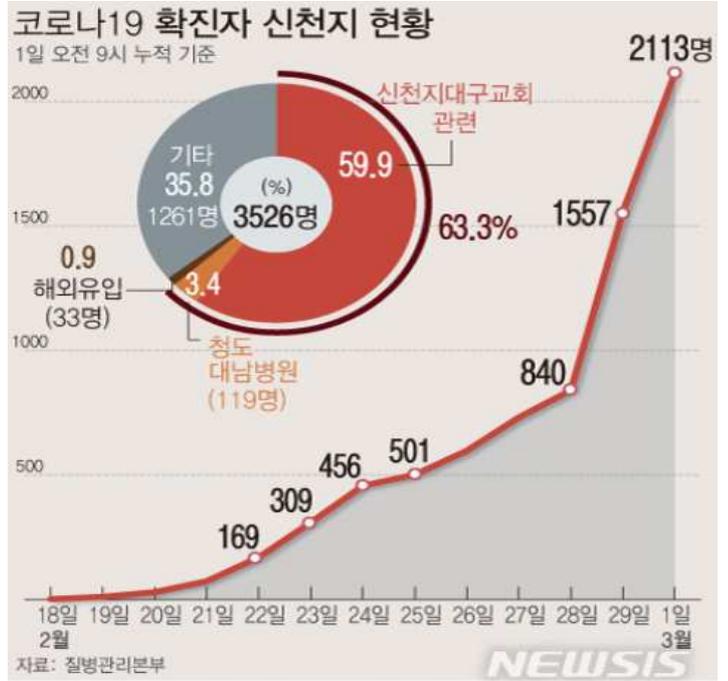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2097200052?input=1195m>)

● 국립대병원협 "코로나19 위급환자, 서울 대형병원서 치료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는 게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한 가운데 위급한 중증환자를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겨 분산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립대 병원장 회의에서 제시됐다. 경증환자의 경우 지방 의료원과 중소병원에서도 치료하고, 위급한 중증환자는 의료진과 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지역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2072000017?input=1195m>)

● **신천지, 中우한→대구→2·3차 감염 증폭. 연결고리 찾아**
 신천지 신도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에서 온 신천지 신도를 매개로 한 코로나 19 확산의 '연결고리'가 풀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가 발표한 신천지 신도 24만여명 출입국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천지 해외 신도 3만3281명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38명으로, 그 중 1명은 우한 지역에서 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재생산지수에 비교해서는 과도하게 많다"며 "아마도 뭔가 긴밀한 접촉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또 오랫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생산지수란 기초감염 재생산지수(R0)로 감염자 한 사람이 감염 가능 기간 직접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평균 인원을 가리킨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v.daum.net/v/20200302040020467>)

● **코로나19 중등도 이상 신속 입원..경증은 생활치료센터 치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병상 부족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치료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환자가 입원 치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증보다 상태가 안 좋은 '중등도' 이상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다. 경증환자는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을 밝혔다. 하루 수 백명씩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구 지역 등에서 병상 부족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바뀐 치료체계는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에 반영됐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전담의료진이 배치돼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의료진이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된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의료관리에 참여하기로 한 병원들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 서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퇴원 기준도 변경됐다. 의료기관에 입원했어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조치를 취하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01194000667>)

● **文 대통령, 마스크 수급 혼란에 식약처장 '질책'...“현장 가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자 담당 정부 기관장을 사실상 '질책'하며 적극적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고 밝혀,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처 :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02MM071805901668>)

● **경기도 감염병 취약시설 1824곳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머무는 의료·거주 시설 1824곳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는 시설은 시설장과 병원장 판단에 따라 입소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돼 생활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은 자연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격리라는 힘든 상황을 인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213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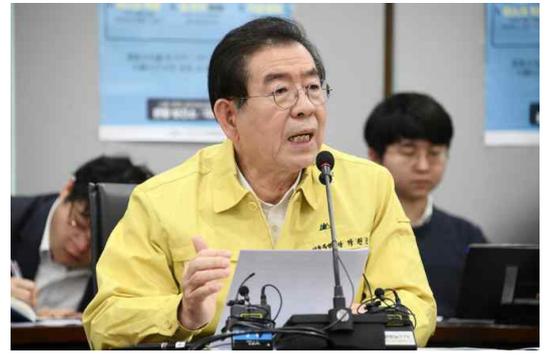
● **대학가 원룸 자가격리 중국인 유학생 관리 사실상 사각지대**

최근 무증상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사회적으로 혼란이 큰 가운데 대학가 원룸에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원룸에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2500030&wlog_tag3=naver)

● **“앞으로 2주가 중요”…모임·외출 최소화 합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통제와 외출 자제 등을 실천하자는 ‘2주간의 잠시 멈춤’ 자발적 캠페인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외출 자제 △지인들과 전화·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만 소통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동요령의 시민 동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해 공모를 통한 캠페인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밖에도 민간 기업들에게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 동참을 제안하면서, 경제적 손해를 시가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0653.html>)



● **코로나 최전선 공중보건의, 감염 땀 국가보상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서 공중보건의 200여명이 대구 등 감염 치료 최전선에 차출되면서 이들이 감염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는 민간 의료진보다 장비 등 처우가 뒤떨어져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현행법에도 감염대책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감염된 공중보건의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무상 재해와 민사소송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공중보건의가 이 대상이 될 확률은 낮다. 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의료인 보상은 감염 피해가 아니라 경제적 손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565.html)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공중보건의가 이 대상이 될 확률은 낮다. 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의료인 보상은 감염 피해가 아니라 경제적 손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도 차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받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뒀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1곳)’와 ‘도보용 선별진료소(2곳)’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발산역 이대 서울병원 맞은편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 부지이며 가로 40m, 세로 72m 규모다. 이곳에는 선별진료소 2동과 대기소 3동, 사무소 2동 등이 설치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04365&code=61111311&cp=nv>)

● **학교 비축 마스크까지 둔 교육부 “개학 추가 연기 검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놓고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와 논의 중”이라면서 “개학 시점을 얼마나 더 미룰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개학을 추가로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곳에는 선별진료소 2동과 대기소 3동, 사무소 2동 등이 설치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행정인력 2명, 안내요원 6명이 근무하게 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04365&code=61111311&cp=nv>)

● “타인의 안전이 나의 안전” 확인한 ‘초연결 생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인류의 일상은 달라졌다. 최초의 ‘인포데믹(정보전염병)’으로 불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우연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초연결 세상의 구조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디지털 세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7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본다. △ 인공지능이 먼저 감지 △루머 넘치는 ‘인포데믹’ △상세한 위치추적과 신원파악 △비밀주의·권위주의 흔들 △전문성과 투명성 가치 확인 △격리속 연결의 도구 스마트폰 △정보리터러시의 중요성 출처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30606.html>)

● 공황장애·폐쇄공포증… 불안 호소하는 대구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두 번째 일요일인 1일 대구는 텅 비어 있었다. 종교, 체육, 문화, 정치 행사들이 모두 끊기면서 시민들은 집으로 움츠러들었다. 마치 전사상황 공습을 피하듯 외출을 삼가고, 일부 시민들은 “외환위기 때도 분위기가 이토록 침울하진 않았다”고 자조하는 상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식별할 수 없는 신천지교회 신자들을 피하려는 시민들의 눈에선 불안과 공포는 물론이고 이웃에 대한 불신까지 얹히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11523782150>)



● 불안감 더 키우는 콜센터 다른 안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을 도맡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의 안내 내용이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오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은평성모병원 방문객은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 후 진료 안내를 받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이 각각 1339와 120에 문의했지만 안내 내용은 달랐다.

1339에서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120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증상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상담하는 주체마다 다르다 보니 시민 불안감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2004013&wlog_tag3=naver)



● “신종 코로나, 우리 삶 방식·가치 재정립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분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나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정신분석학) 교수는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가족 거리 좁히기’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모임 등을 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이들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삶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다. 이 교수는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신종 코로나에 집단으로 감염됐다”며 “우리가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들은 물론 우리 모두 불행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1114084890?did=NA&dtype=&ctypcode=&prnewsid=>)

● **문대통령 "감염병 함께 대응하자"…남북관계 불씨 살아날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해 남북 보건 협력 필요성을 공개 거론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악재가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화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01주년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대북 메시지에서 보건 협력을 핵심 화두로 던진 것은 코로나19가 현지점에서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로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마자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등 국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북한은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청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방역물자 수급 등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1042500504>)

경제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얼어붙은 소비… 신용카드 사용액 절반으로 뚝**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새 절반가량 떨어졌다. 감염 공포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어서다. 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전 업계 카드사 8곳의 지난달 1~23일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은 28조 2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한 달 승인액 51조 3364억원보다 45% 급감했다. 설 연휴(1월 24~27일)에 평균 소비가 늘어나는 점과 지난 1월 전체 기간과의 차이를 고려해 1월의 1주일 평균 승인액(약 10조원)을 빼더라도 지난달 카드 사용액은 1월보다 32% 줄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2021014&wlog_tag3=naver)

● **금 모으기처럼 번지는 '월세 인하'… 코로나 님을 상생 쏟아진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발(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 협력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을 덮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나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등 함께 헤쳐 나가자고 손을 맞잡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보여 줬던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의식이 다시 발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경제계 상생협력

상생 방안	참여 기업
임대료 또는 가맹수수료 인하	또봉이, 피자마루, GS25, 맘스터치, 커피베이, CU, 이디야커피, 더벤티, 명륜진사갈비 등 9개 프랜차이즈
유통업계 중소협력사 무상 방역	롯데홈쇼핑, 신세계그룹 등
카드모집인 소득 보전	주요 카드사
통신사 대리점 임대료 감면	KT, LG유플러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등)

출처: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2006010&wlog_tag3=naver)

● 미 보건, 한국추가조치 여지 남기면서 "선진시스템·투명리더십"

엘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모든 것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중국에 대해 시행한 입국 금지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이탈리아의 투명한 리더십과 선진 의료·보건 시스템,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 등을 평가하면서 그런 이유로 현 단계에선 감염이 심한 일부 지역을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 금지)로 격상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CNN방송 앵커인 제이크 태퍼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9만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진단 키트 제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장 최근 수치를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약 500명가량만 테스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과 비교해 미국의 진단 키트 부족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2004800071>)

● 하버드대 교수 "기온 올라가도 코로나19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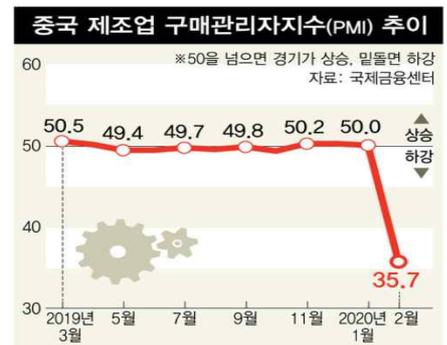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설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2003년 여름에 사라졌다는 것은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하다"며 "사스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강력한 보건 노력 끝에 통제된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날씨와 관계없이 사람에게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가 동일한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질 것이라고 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01210834665>)

● 중국 경제 최악 우려... "우리 경제, 적극적 대응 필요"

2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기존 전망을 밀도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경기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일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보다 14.3포인트 하락한 35.7로 이 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38.8)보다도 낮은 수치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진원지인 중국을 넘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24일 주요 전망기관 36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2.9%에 그쳐, 1월의 전망치 평균(3.1%)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요구했다.

출처 : 위코노미(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0581.html#cb)

일자	국내 발생(명)	정부	서울시
'20.01.03.	-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 우한시 발 항공편 입국자 검역 강화 - 중국 보건당국,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우한 방문 또는 체류자 발열, 호흡기증상 시 1339 신고 당부	
'20.01.08.	-	· 국내 조사대상 첫 유증상자 발생 - 중국 국적 36세 여성 1명, 유증상자 분류되어 격리, 치료, 검사 실시 - 접촉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시작(29명)	
'20.01.11.	-	· 첫 유증상자 PCR 검사 결과 음성 - 유증상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
'20.01.13.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석·검사법 개발 착수	
'20.01.16.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 유증상자 신속한 사례분류,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절차(3판)' 배포('20.1.17.) - 각 시·도 대책반 구성, 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 가동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PCR 검사 이관, 지역별 신속검사 가능하도록 계획	
'20.01.20.	확진:1(+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 35세 여성(중국국적) 인천공항 검역과정 발열 등 유증상	· 서울시 확진자 최초발생 ※ 공식자료 기반 후향적 확진일자 재추정
'20.01.23.	확진:1(-) 확진:1(+1)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로 상향	
'20.01.24.	확진:2(+1) 확진: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확진자 확인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근무자(55세, 한국인 남성), 김포공항 검역과정 유증상 확인 · WHO 긴급위원회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아니야"	· 서울시 '신종 코로나 방역대책 반 가동' 설연휴 24시간 대응
'20.01.26.	확진:3(+1) 확진: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한국인(54세 남성), 1.20. 귀국 · 질병관리본부,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 지정, 사례정의 확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사례정의 확대로 격리 및 감시대상자 큰 폭 증가	-
'20.01.27.	확진:4(+1) 확진: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후 귀국, 55세 남자 한국인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
'20.01.28.	확진:4(-) 확진:1(-)	·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대응체계 강화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추가 확대(1.28. 현재 288개 운영) - 1339 상담센터 상담 인력(27명→170명) 추가 확보 - 감염병관리병상 추가 확보 계획 수립(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 병원, 161 병실) - 민간의료기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가능 하도록 기술과 자료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수위 '보통→높음'으로 조정	· 보건소(25개), 시립병원(4개) 선별진료소 운영 · 격리병상 7개 상시 가동 준비 · 중국동포 밀집지역 임시 신고·지정 센터 지정 · 예방 등 시민 집중 홍보 안내 강화
'20.01.30.	확진:6(+2) 확진:4(+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환자 2명 확인, 첫 2차 감염 사례 발생 - 우한 방문 후 귀국(32세 남자 한국인), 세 번째 환자 접촉자(56세 남자 한국인)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 개최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가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등 범부처 총력 대응 · 민간 협력으로 진단 빠른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 구축·검증·평가 완료 - real time RT-PCR, 1회 검사로 확진, 6시간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1.31.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 · 의료기관 DUR, ITS를 통한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 중국 우한시 입국자 208명 전수 조사 진행 · 관광 위기관리TF 체계 구성 · 서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매일 유튜브 생방송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이송지원반 확대 운영
'20.01.31.	확진:11(+5) 확진:7(+3)	· 우한교민 368명 1차 입국, 유증상 18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역학조사 경과발표, 접촉자 자기격리 및 심층조사 시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기준"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서 이동형 X-ray 장비 구매 188억원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확산 사건 수사 의뢰 · WHO 현지시각 1.30. "국제보건위기상황" 선포	· 선별진료소 58개소 확대 - 시립병원 4개소 추가 - 서울의료원 응급실 유증상 전용응급실로 전환 - 이동 선별진료소 7개 설치 지원 · 역학조사반 4~11명 확대 · 검사가능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기반 후향적 재작성 /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1.	확진:12(+1)	·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관계부처 합동 확대 개편 - 중국 유학생, 여행자, 근로자 등 관련 방역 관리방안 범부처적 안건 논의	
	확진:7(-)	· 우한교민 333명 2차 입국 , 유증상자 7명, 국립의료원 이송 ·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하는 고시가 법제처 검토 완료	
'20.02.02.	확진:15(+3)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선별진료소 288개→532개로 대폭 확대 · 1339 상담인력 (1.31.)38명→126명(2.1.)→188(2.4.) 계획	
	확진:8(+1)	· 우한입국 교민 총 701명 검체 채취 검사, 1차 입국자 1명 확진 -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56명 입소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종료 후 한 차례 더 진단검사 시행	
'20.02.03.	확진:15(-)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차관→장관)주재로 격상 ·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2.4.0시부터) ·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	·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 기금 자금 5,000억원 지원 - 금리 0.5%p인하 등 - 관광객 집중지역 방역소득 · 대외협력기금 2억원 지원 - 우한교민 격리 주변 지역 의 료물품 지원
	확진:8(-)	·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설치, 특별입국절차 진행 - 특별입국절차: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거주지, 실연력처 확인 후 입국 허용 ·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폐지,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 · 중국 유입 추정 9명, 일본 확진자 접촉 1명, 국내 2차 감염 5명	
'20.02.04.	확진:16(+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조기 진단위해 2.7.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1339, 129, 공단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포함 총 596명 상담 배치 · 우한지역 입국자 명단 서울시 송부, 소재 및 위치 파악 전수조사 협업	· 지하철 버스, 택시 감염 예방 본격 돌입 - 대중교통 대대적 방역 · DDP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 방역 매주 실시 - 열화상 카메라, 세정제 등 배치
	확진:8(-)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배포 - 중국 전 지역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 14일간 업무 배제, 등원 중단 권고 -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 16번째 환자, 태국 여행 후 확진(태국 정부 확진자 관련 자료 공유 요청)	
'20.02.05.	확진:19(+3) 완치:1(+1)	· 2번째 환자, 확진자 중 처음 퇴원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바이러스 분리 성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 BetaCoV/Korea/KCDC03/2020 - 유전정보 공개,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	·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업소 802곳 집중점검, 확산 차단 - 3개 시장 75명 투입, 선제적 점검 - 야생동물 등 취급여부 점검 - 1개 시장 방역·소독 실시
	확진:10(+2)	· 국립보건연구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착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와 마스크 수급 대책 마련 · 국민 정보 제공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홈페이지 개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ncov.mohw.go.kr -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팩트 체크, 대응지침, 홍보자료 등 신속 제공 ·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일본 직원 사칭에 대한 수사 의뢰	
'20.02.06.	확진:23(+4) 완치:2(+1)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코로나 대응 논의 ·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급안정화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도매업자 출하·판매시 정부 신고 의무 부여	·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131개 대학로 소극장, 71개 문화시설 특별방역 ·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이동 동 선 지도 서비스 제공 준비 · 확산 방지 위한 개설행안 중앙 정부에 지속 건의 - 7개 건의 5개 반영, 2개 추진중
	확진:11(+1)	· 정부, 민간후원 연계, 마스크 15만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후원 ·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유증상자 4단계 고강도 검역체계 가동 - 검역조사→선별진료→시설격리→진단검사, 확장형 검역 시스템 최초 가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대응절차 5판 개정), 검사기관 확대 · 첫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 퇴원	
'20.02.07.	확진:24(+1) 완치: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 검사 대상 확대, 의사환자 검사비 지원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의사조건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되는자 - 확진자·의사환자로서 진단받은 경우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	· 서울시, 각부시설 2.8부터 운영 - 자가격리자 중 독립생활 어 려운자 대상 - 서울시 인재개발원 활용
	확진:12(+1)	· 선별진료소 556개소로 확대, 1일 검사 가능 건수 3천여건 정도 · 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순위 평가하여 검사대상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기반 후향적 재작성 /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8.	확진:24(-)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17개 시도와 확산 방지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 논의 ·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 위해 법률 근거 관계부처 협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0,000원 지급 - 유급휴가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급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표준 소독 수행 지침, 각 부처와 지자체 배포 · 국내 초기 방역 신속 조치로 다수 경증, 전파 속도 메르스 비해 빠른 편 	
	확진:12(-)		
'20.02.09.	확진:27(+3) 완치: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입국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가진단 앱' 사용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11. 시범운영, 2.12. 이후 시행 · 지자체 총력 동원 태세, 보건소 방역활동 집중 체계 구축 · 환자 조기발견 위한 진단검사 물량 대폭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말까지, 1일 만 건의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확충 · 다수 환자 발생 대비 병상·인력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압)1차 국가지정 198 병상 활용→2차 공공병원 및 군병원, 일반 종합병원 활용 - (인력)10개 즉각대응팀→30개,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 개선 - (치료)국립중앙의료원 주관 "중앙임상TF", 표준적 치료방법 권고안 수립 	
	확진:12(-)		
'20.02.10.	확진:27(-) 완치: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국내 크루즈선 입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336명 중 70명 양성(2.9. 기준) · 11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 2회 연속 음성 확인, 퇴원 	· 자가격리자 8명, 서울시 인제대 개발원 입소
	확진:12(-)		
'20.02.11.	확진:28(+1) 완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 홍콩·마카오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 밝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국 외 환자 발생 6세 지역, 여행 최소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중국 후베이성 철수 권고(3단계), 그 외 중국 지역 여행자제(2단계) · 중국 외 감염 확인 국가 여행이력 정보 의료기관, 약국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 DUR 통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신종코로나 8개 언어로 상담 안내 · 서울시, 공항버스 김해은행 승인
	확진:12(-)		
'20.02.12.	확진:28(-) 완치: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교민 147명 3차 입국, 유증상자 5명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간 임시 생활시설 국방어학원에 입소 ·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 권고 지침 마련·시행 ·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 마카오), 자가진단 앱 설치 ·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 "COVID-19" 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 코로나, VI:바이러스, D: 질환, 19: 2019 의미 · 3번째, 8번째, 17번째 환자 증상 호전 및 2회 검사 음성, 퇴원 · 국내 분리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양, 진단·치료·백신 개발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매체(감체) 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동선 6개소 긴급점검 - 향후, 확진자 동선 내 다중이용시설 조사 확대
	확진:12(-)		
'20.02.13.	확진:28(-) 완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지자체 중심의 자가격리 관리 강화, 격리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일 15개 시·도 17개소 766실 → 2.12일 16개 시·도 19개소 864실 · 진단 시약 생산 확대, 검사기관 확충, 1일 5천명 수준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민간기관 46개 · 중앙임상TF, 코로나19 임상연구 기반 진료권고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에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피해 회복능가 지원 캠페인
	확진:12(-)		
'20.02.15.	확진:28(-) 완치: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교민 1차 입국자 366명(확진자 2명 제외)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전 증상 발생 대처요령, 건강관리, 단기숙소 및 일자 등 교육 - 희망 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 분산하여 이동 예정 · 2.17.부터 입원·격리자들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접수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1.29.부터 심리지원 실시 - 국가·영남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유선 상담, 고위험군 선별 치료 연계 · 7번째, 22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 관광시장 조기 회복 중 합대책 발표 · 2.14. 코로나19 극복 위한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
	확진:12(-)		
'20.02.16.	확진:30(+2)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확진자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입사례(57.1%), 국내 감염사례(35.7%), 전파 경로 조사중(7.1%) - 임상 증상 경미 또는 비특이적, 발열, 인후통 호소가 각 32.1%로 가장 많음 - 입원 후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64.3% 	
	확진:14(+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기반 후향적 재작성 /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16.	확진:30(+2)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소견에 따른 진단검사 확대, 환자 조기발견, 사회 감시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보호 조치 강화 · 지자체 자가격리자 업무 전담관리, 접촉자 격리 시설 23개소, 872실 확대 ·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 · 중국 입국 유학생 7만여 명 14일 자가격리 등 보호·관리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 사업장 방역 및 어려움 겪는 사업장 고용안정 적극 지원 	
	확진:14(+2)		
'20.02.17.	확진:30(-) 완치: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대상 중국 등 여행력 있는 종사자·간병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2.17.~2.18.), 여행이력, 업무배제, 폐렴환자 여부 등 점검 ·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증 병원체 감시체계 코로나19 검사 추가 실시, 참여 기관 확대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긴급 연구과제 공모 시작 ·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등, 대학 체계적 관리 지침 배포 · 한·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상호협력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한지원, 이송방안 협의 - 코로나19 양국 현황 및 방역대책 정보 공유, 향후 협력방안 논의 · 28번째 환자 완치하여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에 긴급환혈 나서 ·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총 3,208명 확산예방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소 1,403개 전수조사 - 취약계층 수시 모니터링 - 취약계층 마스크, 세정제 전달, 감염예방 교육 실시 · 방역조사 인전 '클린존' 마크
	확진:14(-)		
'20.02.18.	확진:31(+1) 완치: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번째 환자 발생(59년생, 대구), 외국 방문 이력 없음 · 12번째, 14번째 환자 증상 호전으로 격리해제, 퇴원 ·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구입비 65억 62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클린시장 운영, 피해 기업 지원 등
	확진:14(-)		
'20.02.19.	확진:51(+20) 완치: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20명, 18명 대구·경북, 15명 31번째 확진자(신천지) 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거침없이 3차 의료시설 직행, 대구·경북 지역 내 다수 응급시설 폐쇄 - 당일 기점으로 국내 확진자 수 폭증 시작 ·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어려움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메르스때도 시행한바 있으며, 청구확인만 거쳐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 · 일본 크루즈선 7명 이송,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 생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민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 총 7명 - 김포공항 검역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격리 생활 시작 ·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협조 요청 · 6번째, 10번째, 16번째, 18번째 환자 완치되어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공영차고지 방역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관리 29개 공영차고지 내 주차장 주1회 소독 - 천만 시민과 운전자 감염 예방
	확진:16(+2)		
'20.02.20.	확진:104(+53) 완치:16(-) 사망: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사망자(청도 대남병원 관련) 발생, 신규 확진자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 · 정부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9명, 중앙사고수습본부 6명 등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선별진료소 8개 추가(14→22개소),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예정 · 지역사회 전파 확인, 진단기관 46개→77개 추가 확대 · 서울지역 확진자, 선별진료소 세차레 방문했으나 검사 거부 · 제주 지역 대구 휴가다녀온 군인 확진 판정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6판), 0시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 환자 의사·해외여행 경력 관계없이 의심될 경우 적극 검사 시행 ·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 구체적 기준 등 심의·의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
	확진:21(+5)		
'20.02.21.	확진:204(+100) 완치:17(+1) 사망: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최초 확진자 발생 ·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음압 9개 병원 50병실 확보, 향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병상 확보 ·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수행 민간 의료기관 4개소 추가 지정,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 청도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 실시 · 정부, 「법정부특별대책지원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준비 · 대구지역 전체 학교, 3월 1주 개학연기 협의 완료 ·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 관련 서울시 확진자 최초 발생 · 서울시 인제대병원 내 코로나19 격리자 8명, 21일 퇴소 · 서울시, 의심증상 시민까지 확대하여 지역감염 차단 노력 ·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방역관리 총력 · 중국입국 유학생 픽업·임시거주공간 모니터링 전방위 지원
	확진:23(+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기반 후향적 재작성 /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2.	확진:433(+229) 완치:18(+1) 사망:2(-) 확진: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약 9,336명) 모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36명 중 1,261명(13.5%) 유증상 응답 - 2.7. 1차, 2.14. 2차 발병 추정, 종교 모임 내 지속 전파 시사 · 청도 대남병원 종사자 및 환자 전수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256명 중 111명 확진(사망자 2명 포함, 의료진 9명, 환자 102명) 확인 	
'20.02.23.	확진:602(+169) 완치:18(-) 사망:6(+4) 확진: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 대비,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 통해 적용 - 해외 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정책,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 전략 추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로 격상 ·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최소 2주간 자율 외출 자제, 이동 제한, 증상자 신속 검사 - 빠른 치료 위한 전담병원 병상·인력 확보 계획 · 지역별 코로나19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환자 음압병상, 경증환자 전담병원 등 병상·인력 확보 계획 · 경주시 40대 남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상 감염자 중 최초 사망 발생 · 서울 은평성모병원 사례 중심 조사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병원 내 2명의 확진자 발생 · 복지부 장관,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 개최 	
'20.02.24.	확진:833(+231) 완치:22(+4) 사망:8(+2) 확진:3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한층 전원 확진판정(113명) · 서울 은평성모병원 간병인 근무자 확진 판정 · 대구, 경북지역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 적극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4.09시 기준, 대구 지역 환자 446명, 경북지역 환자 186명 -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의료인 봉사자 모집 ·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개학 연기(3.1.→3.9.) ·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7대 선제적 대응책 기동 ·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관리비 감면 ·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총 1,700개 참여자 모집 · 코로나19관련 서울시 인턴관리위원회 ·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20.02.25.	확진:977(+144) 완치:22(-) 사망:11(+3) 확진:5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지역 병상·인력,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물량 지속 확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 협조 반기로 합의 ·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조기 지급 특례, 인력·시설 신고 유예,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여행 이력, 업무 배제, 입원 환자 폐렴 증상 여부 등 ·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코로나19 유행지역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배포 · 코로나19 총력 위한 공공 2부제 일시 중단 · 1회용품 규제 제외 적용, 지자체별 탄력적 운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대책본부' 구성(총 40명, 전원 검사 및 병원 내 집중구역 등 감염 차단 조치) · 코로나19 관련 종교계 자문자담위원회 · 신천지예수교 263개소 점검 · 188개 폐쇄방역 집회금지 명령 · 확인불가 66개소 합동점검 · 체포 등을 통한 주·적 한성점검 · 폐쇄시설 집회·종교활동 적발 시 법적 조치 · 집회금지 위반 범투분 고발조치
'20.02.26.	확진:1,261(+284) 완치:24(+2) 사망:12(+1) 확진:6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3.1.까지 전담병원 외 인근 지역병상 포함 총 1,600개 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대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 논의 · 대구 의료인 봉사자 현 205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 · 신천지 약 21만 2000명 전체 신도 명단 확보, 지자체와 전달 ·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및 시행 · 1차 '국민안심병원' 91개 의료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환자 병원 방문·입원 모든 진료 과정, 다른 환자와 분리 진료 병원 -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 신청 · 코로나19 밀접접촉 방지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2.27.~3.8.) ·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 경기도 고양시, 최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에 탄 채로 검사 받는 것으로, 10분 만에 검체 채취 완료 ·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에 이어 서울지하철 병원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도심내 집회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장소 서울역, 효자동삼거리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기반 후향적 재작성 /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7.	확진:1,766(+505) 완치:26(+2) 사망: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의미있는 변이 발견 못해” · 중앙임상위원회,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 의료자원 운영 필요 · 경북지역 음압병상 26개, 전담 총 811병상 확보 계획 · 대남병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 ·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 시행 · 2.27. 기준 총 127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 코로나 19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 국방부,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동참 · 외교부, 우리 국민 입국 제한 또는 여행 제한 조치 외교력 적극 투입 대응 ·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돌봄 공백 대응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대비 광화문세종대로 집회차단 철거 ·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한 예산 긴급지원
'20.02.28.	확진:2,337(+571) 완치:27(+1) 사망: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관 협력 백신·치료 개발 추진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 모범사례 표준운영모형 마련 · 신천지 전체 국내 신도 194,781명 중 53.7% 확인, 유증상 1.4% ·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19 확진자 60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 · 코로나19 긴급 대응 위한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 2.28. 기준 총 174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신천지 28,317명 전수 조사, 유증상 217명, 고위험군 3,545명 ·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 · 서울시와 일부 민간병원 음압 병상 부족사태 대응 ·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 서울 지하철 총력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 SNS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20.02.29.	확진:3,150(+813) 완치:28(+1) 사망: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893개 병상 사용중, 3.5.까지 1,000여개 병상 확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인력: 공중보건의 165명, 간호인력 10명 지원/군 운전인력 61명 지원 - 전담병원 인력: 의사 50명, 간호인력 68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 · 경북지역 전담병원 지정, 환자 소개로 950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인력 의사 9명, 청도 대남병원에 간호인력 46명 지원 · 신천지 전수 조사 88.1% 완료, 1.9%(3,381명) 유증상 	-
'20.03.01.	확진:3,736(+586) 완치:30(+2) 사망: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중 대구 2,569명, 경북 514명, 경기 84명, 서울 82명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 건강취약계층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 국민안심병원 214개 지정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3.01.0시 기준),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20.03.01.10시 기준) 기반 확진일자 후향적 재확인 /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2. 29.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	02-6925-1111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	02-1877-8875
3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	02-1588-3330
4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858-0100
5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	02-950-1114
6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77-3675
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58-8114
8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	02-966-1616
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90-8114
10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912-0100
11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29-5114
12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	02-2632-0013~8
1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88-5700
1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	02-2270-0114
1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19-2114
16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	02-1544-7522
1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25-1111
18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440-8114
1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1522-7000
20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26-1114
2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	02-970-8000
22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6299-1114
23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70-2114
24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99-1004
25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	02-396-9161
26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20-5114
27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50-5114
28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709-9114
29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	02-353-5511~9
30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01-2001
31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	02-2002-8000
32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60-7114
33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	02-437-5011
34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	02-490-2000
총합	18개 자치구	34개소	외래 16개소, 외래,입원, 선별진료 18개소	-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22)	좋은문화병원, 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좋은삼선병원, 삼육부산병원, 좋은강안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영도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세웅병원, 부산성모병원, 대동병원,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 구포성심병원, 부산대학교병원, BHS한서병원, 부산센텀병원, 에스병원, 오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천(17)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나은병원, 검단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기독병원, 비에스종합병원, 더드림병원, 길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뉴성민병원, 나사렛국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대구(9)	영남대학교병원, 드림병원, 대구보광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대전(5)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울산(7)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21세기좋은병원, 울산시티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동강병원
경기(52)	명지병원, 자인메디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바른마디병원, 이춘택병원, 센트럴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메디인병원, 박애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원광종합병원, 남양디에스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지샘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바른세상병원, 서울나우병원, 정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동수원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단원병원, 사랑의병원, 안성성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오산한국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성베드로병원, 이천엘리아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하남SD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강원(4)	강릉아산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8)	한국병원,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진천성모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남(8)	백제병원, 천안충무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아산충무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우리병원
전북(7)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전남(7)	장흥종합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해남종합병원
경북(10)	경산중앙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좋은선린병원
경남(20)	조은금강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갑을장유병원, 김해복음병원, 진영병원, 밀양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바른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청아병원, 365병원, 마산서울병원, CN외래서울아동병원, 연세에스병원
제주(4)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총합	15개 시도 (180개소)

* 출처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2]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5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2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02-3410-2114	36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7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39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2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암병원) *	02-1577-0083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3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4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5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6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4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4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5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0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2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5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2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6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3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67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4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 검체채취 가능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